

환경부 차관, 베트남 녹색성장 경제포럼 참가, 한국의 녹색성장 본보기 제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리는 베트남 녹색성장 경제포럼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베트남 호치민 인민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9월 14일 녹색성장 경제포럼 사전 회의에서 초청 주빈국 대표의 자격으로 축사를 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녹색금융의 움직임 및 녹색산업 우수성을 소개한다.

베트남 녹색성장 경제포럼은 베트남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이며, 필립 뢰슬러 독일 전 부총리, 얀 잠본 벨기에 외교문화부 장관, 투 무디 영국 외부성 실장 등 6개국* 환경·에너지 부처와 100여 개의 기업이 참석한다.

* 대한민국, 독일, 벨기에, 영국, 인도, 호주

베트남은 최근 폐기물 에너지화, 스마트 하수처리시설 등 국내기업이 강점이 있는 분야의 환경 기반시설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중요한 녹색산업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임상준 차관은 땅 꾸엇 칸(Dang Quoc Khanh)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및 판 반 마이(Phan Van Mai) 호치민 인민위원장 등을 만나 환경정책 협력 방안과 우리나라 녹색기술 진출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임상준 차관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삼성엔지니어링 등 녹색산업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베트남에서의 녹색 신규사업(프로젝트) 추진 애로사항 등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올해 2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 창출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라며, “한국형 녹색성장의 본보기(모델)를 전수함으로써 베트남을 녹색산업 수출의 동남아 거점으로 삼아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베트남 녹색성장 경제포럼 계획(안).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책임자	단 장	장이재 (044-201-7560)
		담당자	사무관	금병욱 (044-201-7563)



□ **제4회 호치민 녹색성장 경제포럼 개요**

- (목적)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목표를 지향하는 녹색 경제와 순환 경제에 중점을 두고 세계 녹색 성장의 현황과 추세 논의
- (일시/장소) '23.9.13. ~ 9.17. / 베트남 호치민시
- (주최/주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 외교부
- (참석자) 주요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약 400여 명
 - (베트남) 총리, 호치민 당서기장 및 인민위원장, 기획투자부 장관 등
 - (해 외) 한국, 독일, 영국, 벨기에 등 환경·에너지 관련 부처 및 기업 CEO 등
- * 한국은 환경부 차관,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장 및 주요기업 임원급 등 참석 예정
- (주요내용)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 사례 등 공유